

증권사, 美 주식 열풍에 '방긋'... '서학개미 모시기' 경쟁

삼성증권 신규·휴면고객 수수료 ↓
토스증권 내년말까지 수수료 0.1%

키움증권 美주식 증정 행사 연장
신한투자증권 로이티뉴스 번역

메리츠증권 국내·美 주식 수수료
달러 환전 수수료 2026년까지 무료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거래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증권사 24곳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총 9187억원으로 전년 동기(5417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관심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가 미국 주식 투자자를 환영하는 모습.

돌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계좌 수도 47% 증가한 53만 개에 달했다. 올

해 6월 30조원이었던 미래에셋증권 해외 주식 잔고도 반년 만에 40조원까지 확대됐다.

토스증권 역시 주식모이기 수수료 무료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이벤트에 힘입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해외주식 거래 대금이 30조54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국내주식 30조원일 때 해외주식이 7조5000억원이면 증권사의 국내외 수수료 손익 비중은 1대 1이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금액이 국내주식 수수료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확대 가능성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토스증권은 내년 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0.1%(제비용 별도)로 낮추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3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를 연장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에서 간편하게 미국주식 배당금을 확

인하고 최적의 배당주를 찾을 수 있는 ‘미국주식 배당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이티뉴스 번역 및 요약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2026년까지 전면 무료화하면서 이벤트 시행 25일 만에 예약 자산이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이벤트뿐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 대금 확대가 증권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도 증권사 간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계엄 여파로 동력 잃은 밸류업 ETF ‘시름’

밸류업 ETF 순자산 ‘5043억’으로 줄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계엄 이후 2.55% ↓
尹 직무정지로 투심 하락, 투자자 이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보수’를 내세웠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2월 12~1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인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서 약 1533억원 가량의 자금이 유출됐다. 이외에도 신한자산운용의 ‘SOL 코리아밸류업TR’에서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저 수수료(0.008%) 전략을 펼치며 투자자를 유입했다. 실제로 11월 4일 상장 당일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2040억원으로 12개의 코리아 밸류업 ETF 중 가장 높았다. 계엄 사태 직전이었던 12월

3일까지도 3129억원까지 상승하면서 밸류업 ETF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4일부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8일 기준 1233억원으로 급락했다. 약 2주간 순자산이 60.59%나 빠진 셈이다.

다만 밸류업 ETF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오히려 상장 당일이었던 11월 4일 1130억원에서 18일 2017억원으로 올라섰다. 상장 첫날 삼성자산운용도 낮은 금액으로 접근하기 위해 보수를 기존 0.09%에서 0.0099%로 인하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보다는 높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KODEX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동일하게 0.008%로 인하하면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밸류업 ETF의 선두가 바뀐 것도 13일이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액은 전날 2005억원에서 1799억원으로 감소했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1996억원에서 2005억원으로 증가했다.

임태혁 삼성운용 ETF운용본부장 상

무는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정통 패시브 상품에 맞게 기초지수와 연동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만큼 이번엔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총보수를 인정한 효과가 코리아밸류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개월(약 2~4주) 대비로는 대부분의 밸류업 ETF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 정부가 연초부터 주도해 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탓으로 해석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개 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합은 지난 3일 약 7680억원에서 18일 기준 약 504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12·3 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2.55% 떨어졌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밸류업이 동력을 잃고,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심도 하락했다”며 “밸류업 ETF에서도 투자자들이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밸류업 ETF를 출시한 운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ROE 12% 등 밸류업 계획 공시

(자기자본수익률)

주주환원 정책, PBR 1배 달성 목표

NH투자증권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키움·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증권사 중 세 번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수익률(ROE) 12% 확보,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핵심사업(IB/WM/운용)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자본수익률(COE 10% 수준)을 충족하고 신사업 및 기존사업(홀세일/OCIO/자회사 등)의 수익을 더해 목표 ROE 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핵심사업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시장성장을 초과하는 고성장장제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IB부문은 전통 기업금융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며, 패키지딜(인수금융+공개매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자문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부동산 PF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WM부문은 이러한 IB 경쟁력을 레버리지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NH투자증권

로 활용해 초부유층(UHNW)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규고객 확장 및 해외주식 등 성장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운용부문은 WM 성장에 기반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를 병행한다.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kova@

신한자산운용, 부동산 개발 에쿼티 펀드 조성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발맞춰
‘신한RE밸런싱 펀드’ 조성

신한자산운용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에 발맞춰 자기자본 비율 확충의 역할을 하는 ‘신한RE밸런싱 펀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투자자로는 신한은행과 SK디앤디가 참여할 예정이며, 투자예정금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운용이 조성하는 부동산 개

발 에쿼티 블라인드 펀드는 ‘신한RE밸런싱 펀드’로 구조적 개선을 의미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과 부동산(Real Estate)의 합성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개선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정부당국의 부동산 개발사업 건전성 개선 방향의 일부인 개발사업 자기자본 확충과 관련된 수요

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번 ‘신한RE밸런싱 펀드’의 공동투자의 배경이다. 이 펀드를 통해 세 기관은 향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자산운용 측은 “신한은행 및 국내 상장 디벨로퍼인 SK디앤디와의 협업을 통해 풍부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대신증권, 10번째 종투사 지정 ‘눈앞’

금융위 최종 의결만 남아

대신증권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눈앞에 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금융위 최종 의결뿐이다. 금융위 회의는 연내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치면 대신증권은 10번째 종투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헤지펀드에 자금 대출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와 외화 일반 환전 업무도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9개사다.

/원관희 기자